

불교천태중앙박물관 개관1주년

‘서쪽에서 전해온 불향’ 전

축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의 개관 1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서쪽에서 전해온 불향’ 특별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현대식 박물관의 역사가 100년을 넘었고 전국에 1천여 박물관이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불교전문박물관이면서 세계의 유물을 폭넓게 소장한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자취가 남다른 성과를 보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글로벌 시대를 열어 가는데 박물관이라고 하여 수구적인 자세만 취할 수 없습니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국내의 유물 유산에만 집착하지 않고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역사유산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학습프로그램과 기획전시를 개최할 역량을 가진 만큼 머지않아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서쪽에서 전해온 불향’ 특별전은 국보 보물을 비롯한 귀한 유물을 다수 볼 수 있고, 불화, 경전, 불상, 공예 등 분야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니, 이 또한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의 저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획전과 더 다양한 문화 교육활동을 통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다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불교계의 박물관 운영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술한 문화 유산을 가진 불교계로서는 다소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계종 산하에 개관된 성보박물관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고, 불교천태중앙박물관처럼 앞선 생각을 가진 박물관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불교계 박물관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의 개관 1주년과 ‘서쪽에서 전해온 불향’ 특별전이 갖는 의미는 보다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이제 한 종단의 박물관이 아니라 불교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의 앞날에 더욱 더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며, 개관 1주년과 특별전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불기2558년 10월 1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조계종총무원장 자승